

CFD 해외주식, 프리마켓 확대... 증권사, 서학개미 잡는다

(차액결제거래)

증권사들이 전문투자자 상품인 CFD (차액결제거래) 서비스의 해외주식 이용시간을 프리마켓(장전)까지 확장하면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KB증권뿐 아니라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들에서 CFD 해외주식 서비스를 프리마켓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도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매수뿐 아니라 매도 포지션(하락 베팅)도 취할 수 있다. 보유한 포지션에 만기가 없어 매도 포지션을 활용해 주가 하락시에도 전략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또한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예를 들어 100만원을 투자해 250만원을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유투이미지

KB·키움·메리츠 등 확대운영 상품 보유없이 차액실현 가능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후 이용

최대 2.5배 레버리지 효과도 "양도세 11%, 해외주식 절반수준 원금 초과 손실발생 주의해야"

를 낼 수 있다. 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회사에 심사를 받아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국내주식을 대상으로한 상품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 들어서는 해외주식 상품까지 CFD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주식은 직접 투자 시 투

자가 양도세 22%를 적용받지만, 절반수준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1%를 적용하는 작점이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FD 거래로 인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아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많은 투자자에게 절세 효과가

있다"라며 "그러나 증시 불확실성이 있어 레버리지 투자시에는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달부터 KB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에서 해외주식 CFD 서비스를 장전 거래 서비스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해외주식 CFD 상품을 프리마켓 거래까지 지원하면서 정규장(오후 11시30분~오전 6시)을 포함해 오후 10시부터 거래를 지원한다. 여기에 오는 6월까지 미국, 일본, 홍콩 거래 시 비대면 온라인 수수료를 0.05%, 중국 0.10%로 할인 적용해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키움증권도 이달 말까지 이벤트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CFD 거래 시 수수료를 0.07%로 할인해주고 있다. 또한 해외주식 CFD의 프리마켓 거

래를 지원하면서 오후 9시부터 지원하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키움증권을 통해 해외주식 CFD 거래를 하는 투자자라면 가장 빠르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고 정규장을 포함해 총 9시간 동안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B증권 역시 CFD 신규 및 장기 미거래 비대면 개인 고객 중 다음달 말까지 이벤트에 신청하면 해외주식 0.07%의 특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한편, 코로나 이후 서학개미 증가와 함께 개인 전문투자자 수도 늘어나면서 CFD 시장 역시 크게 성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3330건에 불과한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수는 2021년 2만4365건으로 급증했다. 거래금액도 같은 기간 8조3754억원에서 70조 702억원으로 늘었다.

/이명석 기자 ysl@metroseoul.co.kr

SVB 파산에 뉴욕증시 추종 ETF '줍줍'

해외주식 Click

예탁결제원, VOO 서학개미 매수 1위 8432만 달러 사들인 QQQM 2위로 상위 10종목 중 5종목이 '추종 ETF'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따라 뉴욕 증시가 급락하자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집중 순매수했다. 이어 미국 은행주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3월 13일~19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위 10종목 중 5종목이 뉴욕 증시를 추종하는 ETF인 것으로 나타났다. SVB 파산 여파에 이어 뉴욕 증시가 하락하자 이를 저점 매수 기회로 삼은 것으로 분석된다.

순매수 1위 종목은 벤가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ETF(VOO·VANGUARD S&P 500 ETF)로 1억2755만달러가 유입됐다. VOO는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0.03%의 저렴한 운용 수수료를 내세운다.

이어 순매수 2~4위 종목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이름을 올렸다. 인베스코 나스닥100 ETF(QQQ

(3월 13~19일 국내 투자자 해외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달러)

순위	종목명	순매수 금액
1	VANGUARD S&P 500 ETF (VOO)	1억2755만
2	INVECO NASDAQ 100 ETF (QQQM)	8432만
3	PROSHARES ULTRAPRO QQQ ETF (TQQQ)	2644만
4	INVECO QQQ TRUST SRS 1 ETF (QQQ)	1950만
5	ISHARES CORE S&P 500 ETF (IVV)	1474만
6	SVB 파인애플 그룹	1305만
7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1251만
8	DIREXION DAILY 20+ YEAR TREASURY BULL 3X SHS ETF (TMF)	1181만
9	DIREXION DAILY S&P BIOTECH BULL 3X SHS ETF (LABU)	919만
10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 (SCHD)	767만

/자료=한국예탁결제원

M·INVECO NASDAQ 100 ETF) 8432만달러, 프로샤어즈 울트라프로 QQQ ETF(TQQQ·PROSHARES ULTRAPRO QQQ ETF) 2644만달러,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ETF(QQQ·INVECO QQQ TRUST SRS 1 ETF) 1950만달러 등의 순이다.

QQQM과 QQQ는 모두 인베스코가 운용하며,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다. 단, 수수료의 경우 QQQM이 0.15%, QQQ가 0.2%로 차이가 있다. 이어 TQQQ는 나스닥 100지수의 3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다. 수익률 3배를 추종하지만, 주가가 하락할 경우 3배의 손실이 발생하는 초고위험 상품이다.

서상영 미래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는 글로벌 각국 중앙은행들의 노력 등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보이자 지역은행 이슈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높아지며 상승했다"며 "FOMC를 앞두고 장 후반 일부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으나 결국 은행 문제 통제 기대감 속 경기 침체 우려 완화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서학개미들은 최근 위기설에 휩싸인 미국 은행주를 집중 순매수했다.

순매수 6위 종목에는 파산한 SVB 파인애플 그룹이 이름을 올렸다. 총 1305만달러가 유입됐다. 다만, SVB의 주가는 거래가 정지된 상태여서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박미경 기자 mikyung9@

키움증권, 2022 컴플라이언스 대상 수상

KRX 주관 내부통제평가 기초 선정

한국거래소가 주관하는 2022년도 컴플라이언스 대상 시상식에서 키움증권이 대상을 수상했다.

21일 한국거래소는 우수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고 준법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 3개사와 개인 12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선물회사의 자발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하기 위해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회원사의 ▲준법감시체계 ▲거래소 규정 준수 ▲불공정거래 예방 ▲우수사례 등 기타 사안 등 내부통제평가 결과를 기초로 수상자를 선정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위기가 일상화된 시기일수록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준법감시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며 "한국거래소 역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과 테마주·고빈도 알고리즘 감시 역량을 강화하는 등 본인의 시장 감시에 만전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손 이사장은 "업계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소통 및 금융당국·검찰과의 공조체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증시의 균형과 안정을 위해 회원사와 함께 준법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 통제 우수부문 대상은 키움증권이 차지했다. 준법감시 및 거래소 제규정 준수 등 평정 항목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얻어 내부통제 종합 점수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이명석 기자

외국인 증시 이탈 가속... 이달 1조 순매도

한국거래소, SVB·CS 위기 여파 SK하이닉스·KB금융 등 하락폭 커

외국인 투자자들의 증시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및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 등에 더해 금리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가 외국인 수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인 이달 첫 매도세를 보였다. 외국인은 지난 1월 6조3704억원을 사들인 데 이어 2월에도 4253억원 순매수했으나 SVB, CS 사태 등으로 인해 이달에는 국내 주식을 연일 매도하고 있다. 외국인은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1조422억원을 순매도했으며 이달도 외국인은 553억원을 팔아치웠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하자 코스

피 지수는 지난주부터 급등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3일 2410.60에 마감했던 코스피 지수는 하루 오르면 하루 빠지는 양상을 보이며 최근 2370~2380선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달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들의 주가도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컸다. 이달 외국인 순매도 1위 종목인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이달 들어 6.49% 하락했으며 4·5위인 KB금융과 신한지주는 각각 5.55%, 10.04% 급감했다.

최근 미 금융당국의 발 빠른 대응과 합병으로 SVB, CS 사태가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시장에서는 미국 기준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외국인 투자심리 위축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월 FOMC에서 연준이 빅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사라지고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과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증권 '로보굴링' 가입자 1.1만명 돌파

가입자 61%는 40~50대

삼성증권은 지난 2월 말 기준 '로보굴링' 누적 가입자가 1만1000명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로보굴링의 '굴링'은 돈을 굴린다는 의미로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투자 기간, 투자 방법, 목표수익률에 맞춰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주는 로보 알고리즘 서비스이다.

로보굴링의 가입자는 40대, 50대의 비중이 61%를 차지하는 등 투자에 경험이 부족한 초보 투자자들보다는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의 가입이 많았다. 또한 로보굴링 이용자의 25.8%가 금융자산만 5000만원 이상을 보유한 자산가라고 이들 역시 체계적인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니즈가 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로보굴링의 가장 큰 장점은 특정 금융상품에 치우치지 않는 분산투자에 있다. 로보굴링이 제시하는 포트폴리오는 국내외펀드로 이뤄져 있으며 최초 설계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추가적으로 편입돼 제안될 수 있다. 국내의 주식자산, 채권자산 및 대안 자산으로 구성되는 포트폴리오에는 최소 3가지에서 최대 7가지 상품이 제안돼 충분한 분산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로보굴링은 초개인화 맞춤형 서비스로 투자자의 과거 투자 패턴 등을 반영해 포트폴리오를 제안한다. 투자자는 본인의 의향을 반영해 특정 상품의 투자 비중을 조정하거나 상품을 추가 또는 배제할 수 있다.

/원관희 기자